

## 오독과 오역의 미학

허 명 수  
(한동대)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대부분의 현대 작가나 번역가들에게 있어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개념이다. 카를로스 후엔테스(Carlos Fuentes)는 “독창성은 일종의 병이다”라고 단언했다(70). 즉, 작가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병적인 현상이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 선배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그들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헤롤드 블룸(Harold Bloom)은 이런 병 혹은 강박관념을 ‘영향의 우려(the anxiety of influence)’라고 불렀다. 같은 이름의 저서에서 블룸은 위대한 선배시인(forerunner)과 후배작가(ephebe)의 관계를 프로이트가 제창한 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계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후배시인이 독창성이나 창의성에 대해 야심이 넘치면 영향의 우려를 느낀다. 이런 우려는 존경심과 증오심이 뒤섞인 감정이며, 이로 인해 후배작가의 세계를 형성시키거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후배작가는 자신의 아버지상인 선배작가를 뛰어넘거나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혹은 존재감을 달성하려고 한다. 번역의 경우, 이런 영향의 우려로 인해 야심 찬

번역작가는 단순히 어느 텍스트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 적는 대신 원본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려고 시도한다. 이 경우 원본의 작가는 선배작가가 되며 번역작가는 후배작가 혹은 이피브(ephebe)가 된다.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야심 찬 작가나 번역작가는 원본들을 자신의 재창조물로 변형시키기 위해 위대한 선배작가의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오독을 하거나 오역을 하게 된다. 이런 오독과 오역은 문학과 번역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 미학으로 새롭게 탄생된다.

바스넷(Bassnett)과 트리베디(Trivedi)에 의하면, 독창성이나 원본의 위상을 높이는 개념은 중세 이후에 생긴 현상이다. 확실히 중세기 작가들은 이런 우려로 인해 심적 부담을 가진 적은 없었다. 1450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문맹이 사라지고 독자층이 넓어지면서 저자를 한 텍스트의 소유자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생겨났다(2). 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원작가와 원본은 번역작가와 번역물보다 우대를 받아왔다. 블룸은 이런 영향의 우려가 밀턴, 코울리지, 워즈워드 같은 위대한 작가들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셰익스피어는 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런 우려가 시인들의 의식에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기 이전에 나타난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동년배이긴 하지만 문단에선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보다 오히려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The Anxiety of Influence* 11). 사실 오늘날의 독창성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셰익스피어가 자유롭게 이야기 줄거리, 장소나 등장인물의 이름들, 극장의 기법들을 자유롭게 다룬 희곡, 시, 신화, 연대기 등의 원전에서 발췌하였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의 희곡작품이나 시들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판권을 주장할 사람들을 없었다. 그렇기에 셰익스피어는 이런 우려가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의 손을 거쳐가면서 모든 진부한 표현, 식상한 등장인물들, 평범한 이미지들이 놀랍게 변모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제임스 C 벌만(James C. Bulman)의 말대로, 대문호들이 즐비한 영국문학의 지평선상에 ‘위협적인 구름처럼(threatening cloud)’ 군림하고 있으며(60), 전세계의 수많은 야심 찬 후배작가들에게 가장 막강한 선배작가가 되었다.

현대 드라마계에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후배작가(ephebe)로서는 탐 스타

파드(Tom Stoppard)와 에드워드 본드(Edward Bond)를 꼽을 수가 있다. 오랫동안 본드와 스타파드는 각각 리어왕과 햄릿의 신화에 몰두했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찬사와 동시에 공격도 퍼부었다. 한편으로 위대한 선배작가에게 존경심을,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의 탈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그들은 셰익스피어 원작을 단순히 각색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스타파드의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틴은 죽었다』(*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와 본드의 『리어』(*Lear*)는 그들의 작가적 존재감을 형성하게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는, 두 작가 모두에게 공통적인 아버지상인, 셰익스피어에 대해 자신들의 창의성을 변호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룸은 『오독의 지도』(*A Map of Misreading*)라는 저서에서 로버트 부라우닝(Robert Browning)의 서사시인 “차일드 롤랑이 암흑의 탑에 도달했다”(Childe Roland to the Dark Tower Came)를 면밀하게 읽으면서 이 작품에서도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잘 드러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밀턴에서부터 근대 시인에 이르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변형된 부분을 찾아 마치 지도처럼 오독의 행적을 추적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후배작가는 처음에는 위대한 작가를 신이나 이상처럼 떠받들지만 곧 탈신화적인 작업으로 들어간다. 블룸은 같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후배작가가 선배작가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이미 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곧 아버지에게 잘못을 돌리고 의리를 저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13). 블룸은 이 애증의 변증법이 시로 구체화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기에 선배작가의 작품에 대해 가졌던 애정은 “선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변화를 위한 투쟁”(10)으로 급속히 변모하는 것이다. 이런 변증법의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상을 파괴한 대가로 새로운 탄생 내지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선배작가)와 아들(이피브)간에 보게 되는 애증의 변증법은 창작뿐만 아니라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작자(아버지상 또는 선배작가)와 번역가(아들상 또는 이피브)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번역의 역사에서 항상 논의의 핵심이 되어왔다. 20세기의 80-90년대까지 유럽에서 번역은 원작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출판업자나 작가가 텍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번역가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번역가는 원작자에

비해 부수적이거나 열등한 인물처럼 대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도착언어, 번역 텍스트, 번역가 출신문화나 국적은 모두 출발언어 및 텍스트 원문, 원작자의 문화와 국가에 비해 부수적인 처우를 받았다. 제국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대비는 그 어느 때 보다 명백히 드러났다. 바스넛과 트리베디에 의하면, 원문의 독보적 위상이라는 개념은 유럽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신대륙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초기 식민지 확장 시절과 맞물린다(2).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과 같은 유럽제국주의국가들은 자신을 아버지상(중심적이며 독창적인 주인, 자아)로 여긴 반면 식민지들은 자녀(부수적이며, 복제 혹은 번역된 하인, 타자)라고 생각했다. 식민지 국가에 새롭게 정착한 주민들조차 조국의 지명을 따라 자신의 새 보금자리의 이름을 지었다. 뉴햄프셔, 뉴올리언즈, 뉴욕, 뉴암스테르담, 뉴저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국주의 아버지와 식민지 아들의 변증법은 제국주의 수사법의 핵심이었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이라는 저서에서 흑인은 어린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사람, 즉 백인과 원숭이의 중간단계에 있는 연결고리’쯤으로 간주한다.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과 이야기할 때 “마치 아이를 다루듯 하며, 억지웃음을 지으며, 속삭이고, 생색내는 듯한 태도로 기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30-31). 빌 애쉬크로프트(Bill Ashcroft)는 제국주의 수사법에서는 아이, 즉 식민지는 ‘원시적이고 글자를 모르며 가르칠 수 있으며 부모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주장한다(*On Post-Colonial Futures* 47). 셰익스피어의 『폭풍우』(*The Tempest*)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는 하인을 농락하는 세련된 주인 내지 아버지 상으로 묘사되는데 반해 칼리반은 식인종이며 원시적이자 반항아적인 아들상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칼리반은 유럽 문명의 비참한 신세인 타자를 상징한다. 다니엘 데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에 나오는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다. 이와 비슷하게 17세기 미국 인디언에 포로가 되었던 이야기들(Captivity Narratives)에 등장하는 인디언들도 칼리반이나 프라이데이의 먼 친척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신대륙에 거주하던 청교도들은 유럽제국주의를 떠났지만 여전히 대영제국에 속해 있었고, 원주민인 인디언들에 대하여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인디언을 자신들의 종교적 유포 피아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간주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간파했듯이, 한 편이 다른 편에 종속되는 이런 이분법적 대치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편견이 오랫동안 유럽의 형이상학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우월-열등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증법적 역동관계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데리다 이후로 많은 분야의 비평가와 학자들이 이런 이분법적 대치구조를 해체시켜 왔다. 1980년대에는 탈식민주의 번역가들이 원문(유럽제국주의자들)의 독보적 위상이라는 오랜 개념에 맞서 도전하기 시작했다. 애쉬크로프트의 의견에 따르면,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라는 용어에 사용되는 하이픈(-)은 ‘식민지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이 녹아난 추론적이고 물질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 같은 단어에서 하이픈을 빼면 “모든 종류의 부수적인 것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Post-colonial Transformation* 10).

대개 탈식민주의 번역가들은 그들의 조국이 한때 식민지 억압 하에 있었던 경험을 가진 이피브들이며, 번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영향의 우려’를 가장 깊게 느낄 만큼 야심 찬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원작과 번역의 이분법적 분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했으며, 그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창의적인 독자/작가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려고 했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독자 내지 작가가 되려면 번역가는 부친 살해나 식인과 같은 은유적 개념을 도입해 원작의 강력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는 번역가를 너머 번역작가로서의 위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대표적 탈식민주의 이론가이자 번역작가인 헤롤도 드 캠프스(Haroldo de Campos)는 번역이라는 작업을—더 이상 원작을 복제하거나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를 의미하는—부친살해의 한 형태로 보았다. 그는 번역이 “부친살해적 기억말소(uma desmemória parricida: a parricidal dis-memory)”의 작업이라는 학설을 제기했다(209). 즉, “출처를 없애고 원작을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배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선배작가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평생의 부친살해적 숙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독’과 ‘오역’이다. 다시 말해서, 후배작가는 선배작가의 작품을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창조를 꾀한다. 조나단 쉐러(Jonathan Culler)는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175). 또한 “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우 심각한 오독이며, 오독은 또

다른 오독을 낳을 것이다. 강력한 독자들은 글 전체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80)이라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오독의 미학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이다. 켈러는 선배작가의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자기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해내는 작가가 강력한 작가라고 말하고 있다. 오독은 보통 무지 또는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미숙한 독자들은 오독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켈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오독의 경우이다. 본고에서도 이 의도적인 오독에 초점을 맞추며 논개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런 독서에서는 독자/작가/발표자가 자아나 타자냐에 따라 수사법이나 전략이 달라진다. 예컨대, 유럽이 자아 입장에서 주체가 되어 타자(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를 볼 때는 식민주의적 수사법을 동원하여 비참한 타자를 조정하고 착취하는데 의도적인 오독이 사용된다. 그러나 사실상 유럽국가들은 타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담이나 소문, 허구적인 글에서 얻은 편파적이고 간접적인 지식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환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식민주의적 수사법은 타자를 착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환상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심 찬 독자/작가에게 있어서 의도적인 오독은 어두운 그림자를 헤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오독의 햇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오독의 어두운 면을 좀 더 살펴보자. 오독은 오보를 부른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자신의 저명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모든 보도는 어떤 측면에서 오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서구에서는 잘못 보도되어 왔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보도 자체가 ‘진실’ (이것도 하나의 보도이다)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내포되고, 얽히고, 설키고, 새겨있다.”고 덧붙였다(272). 로버트 J. C. 영(Robert J. C. Young)의 주장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은 “하나의 기표(signifier)이며 그 기의(signified)는 동양이라고 하는 서구의 환상세계와 상응할 뿐이다. 이는 서구세계가 갖고 있는 타자에 대한 지식만을 타자에게 제공하는 반영에 불과했다” (389). 사이드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닌 진실이었으며, 모방이 아닌 창조, 발표가 아닌 보도, 묘사가 아닌 서술, 독백이 아닌 동서간의 담화 또는 변

증적인 대화이다. 그는 서구인들이 동양을 이국적, 관능적, 열광적, 비합리적, 위협적이며, 신뢰할 수 없고 부정직한 모습 등으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구세계 오리엔탈리스트의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이러한 억측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을 던진다. 물론 이런 잘못된 억측과 편견들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이라는 텍스트를 오독한 데서 비롯된다. 사이드의 보도는 서구의 오독을 바로잡고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보다 비평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런 그의 저술은 서구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탈식민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저서로 평가된다.

오독은 필연적으로 오역을 낳는다. ‘번역은 반역(traduttore traditore)’이라는 오랜 이탈리아 경구가 말해주듯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번역은 다 오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나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도 고전이나 시 작품의 번역이 불가능함을 암시한 적이 있다. 번역의 불가능성에는 오역의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오역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번역가들의 텍스트는 장르나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독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의 우려를 느끼는, 자의식이 강하고 야심 찬 번역가들은 출발언어가 표준어 내지 유일한 언어로서 갖는 권위에 도전한다. 애쉬크로프트, 그리피스, 티핀은 그들의 공동저서인 『되받아 쓰는 제국』(*The Empire Writes Back*)에서 ‘중심 영어(표준영어)’와 ‘변방 영어(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어들)’를 구분한다. 영국이 아무리 자신의 언어가 표준영어라고 목놓아 주장하며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주장은 언어학적으로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 영국 당국이 인도식 영어가 잘못 되었다고 선언한다면(인도인 2천 3백 만 명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식 영어로 쓰여진 모든 문학 텍스트에서 오독과 오역이 발생한다. 로라 라이트(Laura Wright)와 조나단 호프(Jonathan Hope)는 소위 표준 영어와 인도식 영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예컨대 ‘상태’ 동사로서 표준영어에선 단순 현재시제가 사용되지만, 인도식 영어에서는 현재진행형이 사용된다. 게다가 인도식 영어에서는 정관사 및 부정관사, wh-의문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연결사나 전치사 등에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Mr Aggarwal chuckled. "Madrasis, they are speaking such badly pronouncing English." "Yes," Mr Singh guffawed. "These Yannas, they are saying yex for x, yam for am ... when they are speaking English, no one is understanding." "How it matters what English they are speaking?" Mr Srivastava groaned. "All I am wanting is good Madraisi tenant for my barsati and only tenants I am getting are from north." (338-40)

아그라왈씨는 킬킬거리며 말했다. “마드라스 사람들 영어 발음 지독하군요.” 싱씨도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 사람들은 엑스(x)를 예스(yex)라고 하고, 엠(am)을 엠(yam)으로 발음한다니까요. …… 그들이 말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자 스리바스타바씨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 사람들의 영어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바사티의 집을 좋은 마드라스 사람에게 세를 놓고 싶은데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북쪽 출신이란 말이요.”

특히 인도식 영어에서 볼 수 있는 신조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마드라시는 어떤 학교나 대학을 가도 반에서 늘 일등만 한다(In every school and college Madraisi topping.)”라는 문장에 나오는 현재분사형 ‘topping’은 ‘반에서 일등(top of the class)’이라는 의미다. 이런 용법은 표준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339). 런던에서조차 85만 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아베어(Abe)에서부터 줄루어(Zulu)에 이르기까지 307종류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3분의 1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어 이외의 모국어를 사용한다(346-47). 이런 상황에서 표준영어의 권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으며 오독과 오역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탈식민주의 작가들은 표준영어의 권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주로 영국이나 미국 식민지였던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영어를 타자가 아닌 자아의 것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영어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오독과 오역의 소지는 다분하다. 엘스 리베로 피레 비에라(Else Ribeiro Pires Vieira)는 오스발드 지 안드라지(Oswald de Andrade)가 쓴 『식인풍습선언』(*Manifesto Antropofage*)의 유명한 구절 ‘Tupi or not Tupi’를 예로 든다. ‘Tupi’와 ‘to be’는 작은 음운론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발음이 똑같다. 즉 ‘Tupi’의 ‘p’는 무성음이지만 ‘to be’의 ‘b’는 양순 폐순 유



성음이다. 투피족은 서구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할 당시 브라질에 살고 있던 한 종족 이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에 이중성 및 다양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와 관련하여 햄릿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유럽인인 동시에 투피족이라는(문명적인 동시에 토착적이며, 기독교적인 동시에 주술적인) 이중적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법전이나 셰익스피어의 고전들을 거부하거나 아예 삼켜버렸다. ‘Tupi, to be’는 1920년대 브라질에서 정신적 식민주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일어났던 운동으로, ‘서구의 유산을 탈신성화하여 삼켜버리는 것’을 의미한다(98). 이 움직임의 주장자들은 식민지개척자들이나 그들의 입법부에서 투피족의 정체성을 허용(allow the Tupi to be)할 수 있는지 또는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체성을 가지라, 투피여 (to be, Tupi)’는 목음의 투피족에게 목소리를 내어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보이며 동질성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식인풍습선언』에서 셰익스피어를 삼키고 햄릿의 딜레마를 재생시키는 작업은 오독과 오역에서 비롯된다. 투피(Tupi)는 투비(to be)로 오독되고, ‘정체성을 가지라, 투피여(to be, Tupi)’는 식민지의 딜레마인데 햄릿의 16세기 존재론적 딜레마—“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으로 오역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장난을 통해 탈식민주의 (번역)작가는 식민지주자들의 목소리에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대로 제기하며, 투피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하고 있다. 삼키는 이미지 혹은 식인종 이미지는 브라질의 식민지 역사를 오독하며 오역하는데 반복하여 등장한다. 위대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브라질 원주민의 종교의식에서의 식인풍습은 하나의 은유로 사용된다. 이런 종교의식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빨아들이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의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는 카톨릭의 성만찬의식에 찾아볼 수 있다. 사딘하(Sardinha)라는 카톨릭 신부가 이런 의식을 설명할 때 투피남바 부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으로 오독하였고, 따라서 그 신부를 문자 그대로 먹어버렸다. 이 끔찍한 식인풍습의 행위는 오역의 또 다른 예이다. 이런 오독/오역은 두 문화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변증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동했다. 바스넷과 트리베디는 이런 식인풍습의 은유야말로 번역작가들이 텍스트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드 캠프스의 수혈의 은유와 살과 피를 삼키는 행위

의 은유는 번역작가의 건강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원전에 대한 충실함이나 번역작가를 원전의 하인으로 여기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5). 사실 오독/오역의 행위는 자아와 타자간의 구분을 해체시킨다.

이렇듯 자의식이 강하고 야심 찬 이피브(독자/작가/번역작가)는 자신만 갖고 있는 오독과 오역의 전략을 갖고 있다. 예컨대, 스타파드와 본드는 “옛 연극과 새 연극 사이를 이어주는 혼성(contamination)”의 기법-블룸의 신조어-을 사용하고 있다(Stoppard 1). 스타파드는 부조리극의 사무엘 베케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며 산문체 대화를 통해 『햄릿』을 혼성 작품으로 만들었고, 본드는 『리어왕』에다 브레히트의 영향을 반영했다. 스타파드는 베케트에 매료되어 『햄릿』을 오독하였고 이를 자신의 혼성 언어를 오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인공들(어리둥절한 두 명의 친구)은 셰익스피어적이라기보다는 베케트적(부조리극의)인 등장인물이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의 블라드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곤(고고)처럼, 로젠크랜츠(로스)와 길덴스틴(길)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황야에 서서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관한 끊임없는 자의식적인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 두 어리둥절한 등장인물, 미지의 무대배경, 게임의 개념들(언어, 인생, 동전 던지기), 분리되어 빠르게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과 끊임없는 실존적인 질문들의 교환 등의 요소들은 베케트의 영향을 대변해 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베케트적인 요소들이 『햄릿』을 혼성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들이 현대인은 평범한 인물들, 혹은 리처드 코발리스가 말했듯이 “현대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존적인 딜레마를 역경으로 갖고 있는 필부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41). 여기에서 주연과 조연 사이의 이분법적인 대치구성은 해체되고 반대의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에드워드 본드의 테크닉은 다소 다르다.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브레히트의 요소를 통해 『리어왕』을 오독하여, 보다 더 사실주의적으로 자세하게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리어왕의 유산을 현대 브레히트적인 드라마로 변형시키는 혼성(오역)을 시도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본드는 관중들을 감성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피비린내가 나는 잔인한 장면들이 가득한 충격 효과를 주는 ‘에그로 효과(agro-effect)’를 사용함으로써 브레히트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억척 어멈』(Mother Courage)에 나타난 브레히트의 ‘소외효

과(alienation effect)'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와 브레히트의 교차점에서 야심적인 혼성자로 우뚝 서고 있다.

드 캠프스는 번역의 다양한 기능과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오독과 오역의 미학을 위한 기법들이다. 비에라가 정리한 목록을 살펴 보면, reinvention, translumination, transparadisation (단테의 번역에서), transtextualization, transcreation, transluciferation (괴테의 『파우스트(Faust)』 번역에서), transhelenization (호메로스의 『일리아스(Iliad)』 번역에서), poetic reorchestration (히브리어 성경을 브라질-포르투갈어로 옮기는 데서), reimagination (고전 중국시를 포르투갈어로의 transcreation에서) 등이 등장한다(96). ‘Re-’와 ‘trans-’는 일방적인 진실에서의 이탈을 암시하는 순환적인 접두사들이다. 하이픈은 단어에 포함된 두 요소를 분리하면서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여, 아버지와 아들, 자아와 타자, 선배작가와 후배작가(이피브) 사이의 변증법적인 담론을 이룬다.

이와 같이, 야심적인 작가와 번역작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역에서 선배나 원저자에 대한 영향의 우려를 느끼며, 이 강박관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배들을 지우고 스스로 창의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의도적인 오독과 오역을 시도하도록 만든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오역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번역가도 있었지만, 의도적 오역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우려나 강박관념은 부친살해와 식인의 은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는 탐 스타파드와 에드워드 본드 같은 후배작가들에게 아버지상으로 대두된다. 아버지(선배)와 아들(후배) 사이의 이분법적 대치관계는 해체되고 변증법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우려는 이피브를 왜곡시킨다. 번역학 분야에서 번역과 번역작가는 오랫동안 원본 텍스트와 저자에 비해 열등하게 간주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번역작가들처럼 야심 찬 많은 번역작가들이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이분법적 대치관계를 해체하고 번역작가의 위상을 창의적 독자/작가/번역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976년에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가 번역학이란 명칭을 제시한 이래, 이 분야의 학문은 번역작가는 물론 번역학자, 언어학자, 문학비평가, 그리고 특히 탈식민주의자들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탈식민주의의

번역 및 기타 번역학에 관한 연구와 실습을 통해 원본(선배)과 번역(이피브) 사이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관점들이 생성될 것이다. 단지 번역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더 변증법적이고 상호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세계의 이슈와 관계들을 읽고 번역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번역작가들은 ‘번역은 반역’이란 이탈리아의 오래된 속담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문구가 아닌 미학적 슬로건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 Works Cited

- Ashcroft, Bill. 2001. *Post-colonial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_\_\_\_\_. 2001. *On Post-colonial Future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_\_\_\_\_, Griffiths G. and Tiffin H. 1989.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and Harish Trivedi. Eds.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ckett, Samuel. 1982. *Waiting for Godot*. New York: Grove Press.
- Bloom, Harold. 1973. *The Anxiety of Influence*. New York: Oxford UP.
- \_\_\_\_\_. 1975. *A Map of Misreading*. Oxford: Oxford UP.
- \_\_\_\_\_, ed. 1986. *Stoppar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 Bond, Edward. 1972. *Lear*. New York: Hill and Wang.
- Bulman, James C. "Bond, Shakespeare, and the Absurd" *Modern Drama* 29 (March 1986): 60.
- Corballis, Richard. 1984. *Stoppard: The Mystery and the Clockwork*. Oxford: Amber Lane Press.
- Culler, Jonathan. 1982. *On Deconstruction*. Ithaca: Cornell.
- De Campos, Haroldo. 1981. *Deus e o Diabo no Fausto de Goethe*. São Paulo: Perspeciva.
- Fanon, Frantz. 1968. *Black Skin, White Masks* (1952). Trans. Charles Lam

- Markham. London: MacGibbon & Kee.
- Fuentes, Carlos. 1990. *Aura*. London: André Deutsch.
- Lefevere, André. 1978. "Translation Studies: The Goal of the Discipline." James S. Holmes, Jose Lambert and Raymond van den Broeck. Eds. *Literature and Translation*. Louvain: ACCO.
- Hur, Myung-soo. 1992. "Tom Stoppard'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and Edward Bond's *Lear*: Modern Contaminations of Shakespeare's *Hamlet* and *King Lear*."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8, No. 4 Winter 1992: 783-99.
- \_\_\_\_\_. 2004. "Misreading and Mistranslating: 'The Anxiety of Influence' in Translating Literature." in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101-12.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 Stoppard, Tom. 1967.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New York: Grove P, Inc.
- Vieira, Else Ribeiro Pires. 1999. "Liberating Calibans: Readings of Antropogagia and Haroldo de Campos' Poetics of Transcreation"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Eds. Susan Bassnett and Harish Trivedi. London: Routledge: 95-113.
- Wright, Laura and Jonathan Hope. 2002. "Linguistic and Postcolonial Literature: Englishes in the Classroom." *Relocating Postcolonialism*. Eds. David Theo Goldberg and Ato Quays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Young, Robert J. C. 2001.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Abstract]

## **Aesthetics of Misreading and Mistranslating**

Hur, Myung-soo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notion of originality or creativity has haunted most modern writers and translators. This obsession often drives them to defy faithfulness and homage to their forerunners in an effort to move beyond the shadow their influence and create something new. Harold Bloom calls this "sickness" or obsession "the anxiety of influence." Bloom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poet (precursor) and his follower (ephebe) in terms of the Freudian analysis of the Oedipal relation between father and son: the belated poet or "ephebe," if ambitious for originality, feels the anxiety of influence.

This kind of anxiety also occupies the ambitious translator who aims at creating a new text out of the original. The ambitious writers and translators intentionally misread and mistranslate in order to erase their precursors and to become creative writers, hence achieving the aesthetics of misreading and mistranslating. This anxiety or obsession often leads to parricidal and cannibalistic metaphors.

The bipolar opposition between father (precursor) and son (follower) should be deconstructed, and develops into a dialectic relation, which in turn promises a new creation. Otherwise, the anxiety malforms the ephebe. In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and translator have long been subordinate to the original text and author.

Fortunately many ambitious translators, such as the post-colonial translators, have tried to deconstruct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and to relocate the status of translator as creative

reader/writer/translator. The research and practice of post-colonial and other translation studies provide diverse and balanced perspectives on the original (precursor) and the translation (ephebe). These efforts should be progressively made not simply to develop and broaden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but also to read and translate the world issues and relations from a more dialectical, reciprocal, or objective perspective.

▶Key Words: anxiety of influence, Harold Bloom, Freud, Shakespeare, precursor, ephebe, post-colonial translation, dialectic, Freud, misreading, mistranslating, translating literature, originality, creativity

허명수

한동대학교 교수

[hms@handong.edu](mailto:hms@handong.edu)

관심분야: 영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3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